‘은/는’과 ‘이/가’의 출현 양상*

최동주**

〈차 례〉

1. 머리말
2. ‘은/는’과 ‘이/가’의 기능
3. ‘은/는’, ‘이/가’를 사용한 표현이 쓰이는 상황
4.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문어와 구어 담화 자료를 검토하여 주어에 결합하는 조사 ‘은/는’과 ‘이/가’의 출현 양상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고에서 검토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주어가 화제이고 이에 대해 설명하는 문장인 경우 ‘은/는’이 쓰이며, 확인문과 사건 보고문은 화제를 갖지 않으므로 ‘이/가’가 쓰인다. 2) 화제에 대한 설명인 경우에도 이전 발화에서 제시된 화제가 유지되거나 맥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화제가 생략될 수 있으며, 대조적 상황일 때에는 외현적으로 제시된다. 3) 대화 자료에서 ‘은/는’이 결

* 이 연구는 2009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이 논문의 초고는 영남대학교 국어생활상담센터의 정기세미나(2012.5.30)와 한국어문학회 춘계학술대회(2012.6.1)에서 발표된 바 있다.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합한 표현들이 대부분 ‘대조’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은, 확인가능한 화제이면서 ‘대조’의 뜻이 아닌 주어가 생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4) 따라서 발화의 화용적 기능에 따른 ‘은/는’, ‘이/가’의 선택은 기본적으로 문어와 구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화제, 은/는, 이/가, 화제-논평 구조, 확인문, 사건보고문

1. 머리말

일반적으로 국어의 조사 ‘은/는’은 ‘화제’ 또는 ‘대조’를 뜻하는 보조사로 간주되며, ‘이/가’는 주격조사로 간주된다. 다음은 이들 조사가 쓰인 표현의 예들이다.

(1) 가. 내 컴퓨터는 고장났어.
나. 내 컴퓨터가 고장났어.

(1가)처럼 ‘는’이 쓰인 표현과 관련하여 남기심 · 고영근(2011: 246)에서는 ‘‘은/는, 도’ 같은 보조사가 주어나 목적어에 쓰이면 주격조사나 목적격조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1가)는 주어에 보조사 ‘는’이 쓰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가’가 화제에 쓰이지 않는다면[1] (1나)는 화제가 외현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의 설명만으로는 (1가)와 (1나)가 각각 어떤 상황에 쓰이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다음 예를 보자.

---

1) 임홍빈(1972, 2007)에서는 ‘화제’를 ‘주제’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가’가 쓰인 표현도 주제(즉, 화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화제에 ‘이/가’가 쓰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2.2.1에서 살펴볼 것이다.

(2) 갑: 네 컴퓨터 잘 되니?
을: {??내 컴퓨터가, 내 컴퓨터는} 고장났어.

(2)와 같은 상황에서는, ‘은/는’을 사용하여 답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가’를 사용하여 답하는 것은 어색하다.[2] 이러한 현상은 국어의 ‘이/가’가 주격조사라는 설명만으로는 만족스럽게 이해되기 어렵다. (2)의 대답에서 밑줄 친 부분이 주어임에도 불구하고 주격조사 ‘이/가’를 사용한 표현이 쓰이기 어려운 것은 무엇 때문일까?

다음 예는 앞의 (2)와 다른 양상을 보여 준다.

(3) 갑: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을: {내 컴퓨터가, ??내 컴퓨터는} 고장났어.

(3)에서와 같은 물음에 답할 때에는, ‘이/가’를 사용한 표현이 자연스럽고, ‘은/는’을 사용한 표현은 어색하다. 이와 관련하여 (3)의 상황에서는 ‘내 컴퓨터’가 화제가 아니므로 ‘은/는’을 사용한 표현이 어색하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렇다면 (3)과 같은 상황에서 ‘내 컴퓨터’를 화제로 제시하여 답하는 것은 왜 어색할까?

그 동안의 국어 연구는 (1)과 같은 표현들이 문법적인지의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그 결과 (1)과 같은 표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쓰이는 것이 적절한지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국어의 조사 ‘이/가’와 ‘은/는’의 쓰임을 만족스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2), (3)의 현상이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화에서는 주어 위치의 조사가 생략되거나 주어가 통째로 생략된 표현도 빈번하게 들을 수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어떠한 경우에 쓰이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

2) 실제 대화에서는 ‘내 컴퓨터가 고장났어’도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논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규명하기 위해 먼저 ‘은/는’, ‘이/가’의 기능을 고찰하고, 이들을 사용한 표현이 어떠한 상황에 쓰이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주어 위치에 나타나는 ‘은/는’, ‘이/가’의 쓰임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문장의[3] 중간에 나타나는 ‘은/는’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만 간략하게 다루게 될 것이며, 안긴 문장에 나타나는 현상 등 그밖의 문제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 둔다.

2. ‘은/는’과 ‘이/가’의 기능

2.1. ‘은/는’

조사 ‘은/는’은 ‘화제(또는 주제)’임을 표시하거나 ‘대조’의 뜻을 나타낸다고 주장되어 왔으며, ‘한정성’을 갖거나 구정보여야 한다고 보기도 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1.1. ‘은/는’과 ’화제’, ’대조’

‘은/는’이 쓰인 표현은 ‘화제’로 간주되기도 하고, ‘대조’의 뜻을

3) 임홍빈(2007: 18)에서는 ‘화제’가 담화 층위의 개념이라면 이를 문장에서 찾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Lambrecht(1994: 12)에서는 통사론, 의미론, 정보구조 등의 문법 부문들이 계층적이고 각기 독립적인 하위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으며, 문장의 구성에 함께 관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국어 상대높임법의 경우 청자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담화적 성격을 지니나 문장에 실현되며, 대명사의 출현은 청자(혹은 독자)가 확인할 수 있음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담화적 요소가 반영된 것임 등을 고려할 때, 담화적 요소도 문장의 구성에 관여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다음을 보자.

(4) 철수는 영희를 좋아했어.

(4)는 화자가 청자에게 ‘철수’에 대해 어떤 정보를 언급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4)의 언급 대상인 ‘철수’를 ‘화제’라고 하며,[4] 이때의 ‘는’은 ‘철수’가 ‘화제’임을 나타내는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 (4)는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았거나 어떠했는지 모르나 철수는 영희를 좋아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은/는’이 ‘대조’의 기능을 가진다고 보는 것은 이러한 경우를 말한다.

‘화제’를 언급 대상으로 정의하는 것에 대해 임홍빈(2007: 354, 362)에서는 언급부 정보에 의해 화제를 정의하는 것으로, 화제 자체의 성격이 정확하게 파악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언급부 정보에 대하여 ‘제시’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박철우(2003: 47-48)에서도 ‘화제’를 ‘연결부’로 부르면서, “청자에게 문장이 운반하는 정보가 도입될 지식저장소 내의 주어진 주소로 가도록 지시한다는 점에서 ‘주소 지시자’라고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화제’란 발화에 의해 언급되는 내용이 그것과 관련된 것임을 제시하는 지시자라고 정의하기로 한다.[5]

한편 ‘은/는’의 기본적 기능을 ‘대조’로 본 논의로는 임홍빈(1972, 2007), 남기심 · 고영근(2011) 등이 있으며, 이정민(1997)에서는 기본적으로 ‘화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면서 문중에서 대조의 의미를 갖는 ‘은/는’에 대해서는 화제와 구별하였다. 이와 달리 박철우(2003: 120-121)에서는 ‘은/는’이 ‘화제’를 나타내며, ‘대조’의 의미

4) ‘화제’의 이러한 특성을 ‘언급대상성’ 혹은 ‘대하여성’이라고 부른다(임홍빈 2009: 135).

5) ‘화제’의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항상 ‘화제’에 관한 정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이에 대해서는 3.2.1에서 살펴볼 것이다.

는 ‘화제의 영역이 문맥에 의해 제한되어서 대조되는 대상이 명확해짐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부차적인 현상’이라고 보았다.

다음 예는 ‘대조’의 의미가 어떠한 성격인지에 관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5) 질문: 칠수하고 만수는 지금 뭐해?
가: 칠수는 회사에 다녀.
나: 칠수는 회사에 다니고, 만수는 놀아.

(5)의 경우 질문에서 ‘칠수하고 만수’가 화제로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5가)에서는 그 일부인 ‘칠수’만 언급함으로 ‘만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만수는 회사에 다니지 않는다’는 의미를 함축하게 되며, 언급되지 않은 ‘만수’와 대조된다고 할 수 있다(박철우 2003: 121). (5나)는 ‘칠수’와 ‘만수’를 별개의 화제로 제시한 것으로, ‘칠수는’과 ‘만수는’에서 각각 대조적 의미가 느껴지는 것도, (5가)에서와 마찬가지로, 각각 대상의 일부만을 화제로 삼고 있음에 기인한다.

(5가)와 관련하여, ‘만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만수는 회사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함축적 의미이며, ‘대조’의 의미는 질문 문맥에서 제시된 화제 중 일부만을 화제로 삼은 데서[6] 생겨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만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만수는 회사에 다니지 않는다’가 (5가)의 의미의 일부가 아니라 함축적 의미임은 화자가 만수도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밝히고 싶지 않은 경우에도 (5가)처럼 답할 수 있다는 것에 의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7]

---

6) 질문이 요구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Grice의 대화상의 격률 중 ‘양’(quantity)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박철우 2003: 166).

7) 즉, 취소가능하다. 또한 (5나)에서 보듯이 잉여적 느낌을 주지 않으면서 보

결국 '대조'의 의미는 가능한 화제의 영역 중 일부만을 화제로 삼을 때 생겨나는 의미라고 하겠는데(박철우 2003: 159),[8] 이러한 해석은 가능한 화제의 영역이 둘 이상의 지시체를 포함하고 있을 때에만 한정되므로 '대조'를 '은/는'의 기본적 의미라고 할 수 없다. 화제로 제시할 수 있는 지시체가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대조'의 의미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박철우 2003: 121).

가능한 화제의 영역에 둘 이상의 지시체를 상정할 수 있을 경우에도 항상 '대조'의 뜻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예를 보자.

(6)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 창밖은 가을이다. 남쪽으로 난 햇빛은 하루하루 깊이 안을 넘본다. 창가에 놓인 우단의자는 부드러운 잿빛이다. (박완서의 소설 [그 가을의 사흘 동안]에서)

(6)의 밑줄 친 부분들은 어느 것도 '대조'의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6)과 같은 표현에서도 가능한 화제의 영역에 둘 이상의 지시체를 상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문맥상 '창밖'에 대해 '방 안'을 떠올릴 수 있다면, '대조'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창밖은 봄인데, 방 안은 한겨울 …'). 이는 가능한 화제의 영역에 상정될 수 있는 지시체가 둘 이상이더라도 그것이 문맥상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만 '대조'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5), (6)을 통하여 '대조'의 의미가 화제의 영역에 둘 이상의 지시체가 있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일부만을 화제로 삼음으로써 생겨나는 문맥적 의미임을 살펴보았다. 이는 '은/는'을 사

강(reinforce)될 수 있다(Levinson 1983: 120)

8) 박철우(2003: 159)에서는 이미 화제로 제시된 것을 대답에서 생략하지 않고 다시 반복할 때(예: 콩은 누가 먹었니? 콩은 Fred가 먹었어.)에도 대조의 의미가 생겨난다고 하였다.

용한 표현이 ‘대조’의 의미로 해석될 때에도 ‘은/는’은 여전히 ‘화제’를 나타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은/는’의 기본 의미는 ‘화제 표시’라고 하겠다.[9)]

2.1.2. ‘은/는’과 ‘구정보’, ‘한정성’

화제는 흔히 ‘구정보’라고 불리기도 하고 ‘한정성’을 갖는다고 주장되기도 하였다. 다음 예를 보자.

(7) 철수는 그런 음식 안 좋아할 걸.

(7)의 화자는, 청자가 ‘철수’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생각했다면 (7)처럼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점에서, ‘철수’가 누구인지 청자가 알 수 있다고 가정하고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화제는 구정보이거나 한정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의 ‘구정보’, ‘한정성’은 화자의 가정에 기초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박철우 2003: 132). 실제로 청자가 ‘철수’가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청자가 ‘철수’가 누구인지 모를 경우 (7′나)에서처럼 묻는 것으로 대화가 이어질 수 있다.

---

9) ‘은/는’이 결합한 성분이 문장의 중간에 나오는 경우에는 ‘대조’의 의미가 뚜렷하다.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나, 이러한 현상은 문중의 성분이 서술어와 좀더 밀접하게 관련되는 성분인 데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문중의 성분에 ‘은/는’이 결합한 경우에는 그 성분이 속하는 영역과 서술어가 속하는 영역 사이에 다양한 관계가 상정될 수 있으며, 이중 특정 항목을 언급 내용 안의 화제로 제시함으로써 ‘대조’의 의미가 뚜렷해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그 라면은 철수가 먹었어’에서 보듯이 목적어라고 하더라도 문두 위치에 나오는 경우에는 ‘대조’의 뜻이 아닐 수 있는데, 이는 문두에 위치하는 화제가 서술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7′)가: 철수는 그런 음식 안 좋아할 걸요.
나: 철수가 누군데?

(7′)는 화제가 반드시 청자가 알고 있는 지시체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화자는 청자가 알 수 있다고 가정하는 지시체를 화제로 제시하고, 실제로 청자가 화제가 지시하는 지시체를 알 때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질 수 있음을 말해준다. 청자가 모르는 지시체를 화제로 제시한 경우에는 청자의 이해를 어렵게 하여 소통에 장애가 된다. 따라서 청자가 알 수 있는 지시체를 화제로 제시할 때 가장 자연스러운 발화가 되며, 청자가 모를 가능성이 높은 지시체일수록 부자연스러운 발화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Lambrecht(1994: 165)는 이를 '화제 용인가능성 척도'로 제시하였다.

(8) 화제 용인가능성 척도(The Topic Acceptability Scale)

활성화된 지시체	용인가능성 높음
접근가능한 지시체	↓
사용되지 않은 지시체	
완전히 새롭지만 닻 내린 지시체	
완전히 새롭고 닻 내리지 않은 지시체	용인가능성 낮음

Lambrecht(1994: 99-100)는 '접근가능'을 세 가지로 나누고, 텍스트외적 세계에 기인하는[10] 경우를 '상황적으로 접근가능', 이미 언급된 바 있어서 접근가능한 경우는 '텍스트적으로 접근가능', 담화 세계의 다른 활성화된 또는 접근가능한 요소로부터의 추론을 통해 접근가능한 경우는 '추론적으로 접근가능'하다고 하였다. 인지적으로 가장 용인가능한 발화는 화제가 (8)의 척도상 위쪽에 있는 지시체인 경우이다. '사용되지 않은 지시체'란 '확인가능하나 활성화

10) 직시어(deixis)에 의해 지시되는 지시체는 '텍스트 외적 세계'(text-external world)에 속한다.

되지 않은' 지시체를 말하며, '닻 내린(anchored)'은 명사구가 지시하는 바가 다른 담화 지시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뜻한다(Prince 1981: 236).[11]

때로는 청자가 모르는 지시체를 의도적으로 화제로 삼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소설 같은 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다음이 그 예이다.

(9) 그 집에는 느낌이 있었다. 그 느낌은 그 집을 지은 자재나 규모 또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집 간수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보통집의 표정 같은 것하고는 달랐다(박완서, [환각의 나비] 첫 부분에서).

(9)는 한 소설의 첫 부분을 옮긴 것이다. '그'는 상대방 또는 독자가 확인할 수 있다고 화자가 가정할 때 쓰이는 표현이나, (9)에서는 독자가 '그 집'에 관한 아무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으로 표현되었으며, 화제로 제시되었다. (9)의 현상과 관련하여, Chafe(1994: 227-228)에서는 이처럼 확인가능한 지시체인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독자는 이전 경험으로부터 끊김 없이 이어진, 그리고 다음에 이어질 사건으로 흐르는 경험을 하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현상은 상대방 또는 독자가 모르는 대상을 의도적으로 화제로 삼을 수도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2.2. '이/가'

'이/가'는 일반적으로 주격조사로 간주된다. 본절에서는 먼저 '이

11) 예를 들어 '어떤 친구'와 '나와 같이 일하는 어떤 친구'는 '완전히 새로운 지시체'이며, 이중 후자는 '완전히 새롭지만 닻내린 지시체'가 된다.

/가’가 화제에 결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때로 ‘이/가’를 사용한 표현이 ‘특별히 지정하여 말함’의 뜻으로 해석되는 것은 어떠한 현상인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2.1. ‘이/가’가 화제에 결합할 수 있는가?

앞에서 ‘은/는’은 화제 표지이며, 화제는 발화에 의해 언급되는 내용이 그것과 관련된 것임을 제시하는 지시자임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생겨나는 의문은 화제에 ‘이/가’가 결합하는 경우는 없는가 하는 점이다. 다음을 보자.

(2′) 갑: 네 컴퓨터 잘 되니?
을: ??내 컴퓨터가 고장났어.
(10) 갑: 네 컴퓨터 잘 되니?
을: 내 컴퓨터가 고장났어. 글자가 깨어져 보여.

각주 2)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2)와 같은 상황에서는 ‘내 컴퓨터는’이 자연스럽지만, ‘내 컴퓨터가’도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내 컴퓨터’를 화제로 볼 수 있을까? 그런데 ‘내 컴퓨터가 고장났어’로 답할 경우에는 (10)에서처럼 뒤에 다른 내용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며, (2′)처럼 다른 내용이 이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색하게 느껴진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내 컴퓨터가 고장났어’로 답할 경우, 발화 전체가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그 배경이 되는 사건을 제시하는 기능을 가짐을 의미한다. ‘내 컴퓨터는 고장났어’로 답할 경우 ‘고장났어’가 화제 ‘내 컴퓨터’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충분한 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내 컴퓨터가 고장났어’로 답할 경우는 발화 전체가 사건 제시문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2′)에서처럼 뒤에 다른 내용이 이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색하게

느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중시하면 '내 컴퓨터가'의 '내 컴퓨터'는 화제가 아니며,[12] 따라서 화제에는 '이/가'가 결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2.2. '이/가'에 '특별히 지정하여 말함'의 기능이 있는가?

그 동안의 연구에서 '이/가'에 '특별히 지정하여 말함'의 기능이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 역시 문맥적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 예를 보자.

(11) 갑: 내일은 누가 오기로 했니?
을: 철수가 올 거예요.[13]
(12) 올해도 역시 수능 난이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영역별로 응시자의 1%가 만점을 받도록 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의 과학세상, 디지털타임스 2011.12.07)

(11)과 같은 대화에서는 '이/가'에 '특별히 지정'하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12)에서도 '이/가'에 '특별히 지정'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는 '이/가'가 쓰인 표현이 '특별히 지정'하여 말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이/가'의 의미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에 기인하는 현상임을 의미한다.

'이/가'가 '특별히 지정하여 말함'의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없음은 이러한 해석이 '이/가'에만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좀더 분명해진다. 다음 예를 보자.

---

12) 사건 제시문은 화제를 갖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는 3.1에서 살펴본다.
13) 이 경우에도 '철수는'을 사용하여 답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볼 것이다.

(13) 가: 거기서 누구 만났니?
나: { 철수, 철수를 } 만났어요.

(13가)에 대하여 답할 때 (13나)에서처럼 ‘를’이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를’이 나올 경우 ‘특별히 지정’하는 뜻이 강하다. 이는 ‘특별히 지정하여 말함’이 ‘이/가’만의 의미가 아니며, 다른 요인에 기인한 것임을 확인시켜 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어떤 지시체를 특별히 지정하여 말할 경우[14] 조사를 생략하지 않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자 한다.

3. ‘은/는’, ‘이/가’를 사용한 표현이 쓰이는 상황

본 장에서는 ‘은/는’, ‘이/가’를 사용한 표현이 어떠한 상황에서 쓰이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1. 문장의 기능에 따른 유형

국어의 정보구조를 고찰한 박철우(2003: 46)에서는 Vallduví(1990)의 삼항 계층 분절을 받아들여 문장이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고 보았다.

(14) 가. 문장 = {초점부, 바탕부(연결부, 꼬리부)}
나. 연결부 - 초점부 - 꼬리부
(15) 화제 - 논평(초점부 - 꼬리부)

14)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좀더 정확히 말한다면 문제의 성분이 초점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14가)는 박철우(2003: 46)에 제시된 것을 약간 수정하여 보인 것이며, (14나)는 연결부가 전형적으로 문장의 앞에 위치함을 고려하여 나타낸 것이다. 박철우(2003)의 연결부를 '화제'로 부르고, 초점부와 꼬리부를 '논평'이라고 부르면 문장의 구조는 (1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문장에 화제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므로, 문장의 가능한 정보구조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유형이 된다.

(16) 가. 화제 - 논평(초점부, 꼬리부)
나. 논평(초점부, 꼬리부)

한편 Lambrecht(1994: 121-127)에서는 문장을 화용적 기능에 따라 (17)에서처럼 3가지로 구별하였다. (18)은 각각의 예를 보인 것이다.

(17) 가. 화제에 대한 설명
나. 확인
다. 사건 보고(또는 제시)[15]
(18) 가. 내 컴퓨터는 고장났어.
나. 내일은 누가 오니? 철수가 올 거예요.
다. 어제 철수가 찾아왔어요.

초점 구조의 관점에서 보면 (17가)는 '술어 초점', (17나)는 '논항 초점', (17다)는 '문장 초점'이 된다(Lambrecht 1994: 222-223). (1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7가)는 (16가)의 구조를 가지며, (17나,다)는 (16나)의 구조를 갖는다. 확인문과 사건 제시문은 어떤 대상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화제를 갖지 않는 것이다.[16] (17가)의 경우도 반드시 화제가 외현적으로 출현하는 것

15) 담화에 지시체를 도입하거나 배경을 제시하는 경우도 (17다)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발화의 일부를 수정하여 말하는 경우는 (17나)에 속한다.
16) 화제를 제시하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제시할 수도 있으므로 사건

은 아니다. 이전 발화에서 이미 화제가 제시되어 유지되는 경우에는 생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제가 새롭게 제시되거나, 이전 발화와 동일한 화제이더라도 강조되는 경우 등에 (16가)와 같은 구조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앞의 (2), (11), (3), (10)을 옮겨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2) 갑: 네 컴퓨터 잘 되니?
을: {??내 컴퓨터가, 내 컴퓨터는} 고장났어.
(11) 갑: 내일은 누가 오기로 했니?
을: 철수가 올 거예요.
(3) 갑: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을: {내 컴퓨터가, ??내 컴퓨터는} 고장났어.
(10) 갑: 네 컴퓨터 잘 되니?
을: 내 컴퓨터가 고장났어. 글자가 깨어져 보여.

(2)의 대답은 ‘내 컴퓨터’에 대하여 설명하는 표현이므로 ‘내 컴퓨터’가 화제로 제시된 것이다. (2)에서 ‘는’을 생략한 ‘내 컴퓨터 고장났어’도 가능한데, 이는 화제가 ‘는’이 없이 제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화제 용인 가능성의 척도가 높은 화제일 때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17] (11)은 확인문으로 주어가 초점이고, 화제가 없는 표현이다. (3)은 사건 제시문으로서 문장 전

을 제시하는 발화가 항상 화제를 갖지 않는 것은 아니나, 본 연구에서는 전자의 경우는 ‘화제에 대한 설명’으로 부르고, 화제 없이 사건을 제시하는 경우만 ‘사건 제시’로 부르기로 한다.

17) 일반적으로 확인가능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대명사화하거나 형태가 축소되어 나타나며 생략가능성도 높아지는데(Lambrecht 1994: 94-95), ‘은/는’의 생략도 이러한 현상의 하나라고 하겠다. 그러나 확인가능성의 정도가 높은 지시체가 반드시 축소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대조적 의미가 강한 경우나 강조 등의 상황에서는 명시적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박성현(2008: 179-184)에서도 조사가 없는 ‘영형 화제’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체가 초점이며, 역시 화제가 없는 표현이다. (10)에서 '내 컴퓨터가 고장났어'는 '내 컴퓨터'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 것이라기보다는 뒤에 이어지는 '글자가 깨어져 보여'라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그 배경이 되는 사건을 제시하는 성격을 지니므로 (3)에서처럼 '내 컴퓨터가'로 나타난 것이라고 하겠다.

위의 예에서 주목되는 것은 (2)와 같은 질문에 대해 '은/는'을 사용하여 답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10)에서처럼 '이/가'를 사용하여 답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0)의 대답과 같은 발화가 가능한 것은 '내 컴퓨터의 고장'을 다른 상황의 배경이 되는 사건으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의 상황에서도 '이/가'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은/는'을 사용한 대답도 가능하다. 다음을 보자.

(11′)갑: 내일은 누가 오기로 했니?
을: 철수는 올 거예요.

(11′)은 '오기로 한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 '갑'의 질문으로부터 '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영역에 둘 이상의 지시체가 있음을 추론할 수 있는 상황이다. '갑'의 질문에 대해 '을'은 '철수'만을 화제로 제시함으로써, 질문이 요구하는 정보에 대해 충분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을'의 대답이 '다른 사람은 오지 않는다'(혹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의미를 함축할 수 있으나, 이러한 함축은 취소가능하기 때문에, '갑'은 '누가 오기로 하였는지' 온전히 확인할 수 없다.[18] (11′)에서처럼 '은/는'을 사용한 대답이 '이/

18) 반면 '철수가 올 거예요'라고 답한 경우에는 '철수가'가 화제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갑'이 요구하는 정보를 확인(identify)하여 준 것이므로, 초점이 되며, '오기로 한 사람'이 '철수'뿐인 것으로 해석된다. 확인문의 이러한 의미를 '총망라성'이라고 한다.

가'를 사용한 대답보다 적절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여기에 기인한다. '질문-대답'의 인접쌍에서 두 번째 부분에 올 수 있는 발화는 다양할 수 있으나, 이 모든 가능한 발화가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Levinson 1983: 307-308). (11′)에서처럼 '은/는'을 사용한 대답은 질문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선호되는 두 번째 부분'(preferred second)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10), (11′)를 통하여, 어떤 지시체가 활성화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화제로 제시하지 않고 '이/가'를 사용하여 답할 수 있으며, 확인을 요청하는 질문에 대해 확인문으로 답하지 않고 특정 지시체를 화제로 제시하여 그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답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은/는', '이/가'의 쓰임을 설명하기 위해 발화가 어떠한 화용적 기능을 갖는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3.2. 실제 용례의 분석

본 절에서는 실제 사용된 문어와 구어 자료를 대상으로 '은/는', '이/가'의 출현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3.2.1. 문어 자료의 분석

다음은 신문의 보도 기사를 옮긴 것이다.

(19) ①'팝의 여왕' 미국 여가수 휘트니 휴스턴이 11일 오후 3시 55분쯤(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베벌리힐튼 호텔 객실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다. ②향년 48세. 휴스턴은 이날 저녁 이 호텔에서 열리는 제54회 그래미상 시상식 전야제에서 노래할 예정이었다.
③경찰 대변인은 "타살 흔적은 없으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

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④휴스턴은 1985년 데뷔 이래 7곡 연속 빌보드 싱글차트 1위, 그래미상 6회 수상, 누적 음반판매량 1억7000만 장의 대기록을 세우며 팝의 역사를 새로 썼다. ⑤1992년 가수 바비 브라운과 결혼하고 2007년 이혼하는 과정에서 약물중독에 빠졌다. ⑥유족으로 …… 딸 바비 크리스티나 브라운(18)이 있다.(경향신문 2012.2.13)

(19)의 ①은 사건 제시문으로 화제가 없는 표현이다. 신문 기사문에서 (19)①에서처럼 사건의 내용이 문두에 제시되는 경우에는 화제가 없는 구조를 취하는 것이 좀더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19]

②에서는 '휴스턴'이 화제로 제시되었다. ③의 화제 '경찰 대변인'은 앞에 언급된 바 없으나, 세상사적 지식에 의해 접근 가능한 지시체라고 할 수 있다. ④에서 다시 '휴스턴'이 화제로 제시되었는데, 이는 ②와의 사이에 '경찰 대변인'이 화제인 ③이 개재함에 따라 '휴스턴'의 활성화 정도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⑤는 '휴스턴'에 관한 언급으로, '휴스턴'이 화제이나 ④에서 이미 제시되어 유지되고 있으므로 생략된 것이다. ⑥의 화제는 '유족'이라고 할 수 있으나 '는'이 나타나지 않았다. '유족'은 앞에 언급된 지시체는 아니나, '휴스턴의 사망'에 관한 기사라는 점에서 '유족'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쉽게 추론할 수 있다. '유족' 앞

19) (19)①과 달리 주어가 앞에 제시되는 경우에는 '화제-논평' 구조로 시작하는 사례(다음의 ㉮)도 있고, 화제가 없는 구조를 취한 사례(다음의 ㉯)도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무엇을 사건으로 파악하였는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기사의 담화 구조와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7일(현지시간) LA 경찰은 지난 25년 간의 추적 끝에 LA에서 악명을 떨쳤던 연쇄 살인범 '그림슬리퍼(Grim Sleeper)'를 체포했다고 밝혔다.(뉴시스 2010.7.8)
㉯ ○○대 수의대가 8일 소속 교수들의 ○○○○ 논문 조작 의혹이 최근 잇달아 제기된 데 대해 ○○○ 학장 명의로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한국일보 2012.6.8)

에 관형어가 나오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라 하겠는데, 이러한 현상은, ⑤에서의 화제 생략 현상과 함께, 화제 용인가능성의 척도가 높은 지시체일수록 단축된 형태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20]

(19)의 ②, ③, ④에 제시된 화제는 어느 것도 ‘대조’의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데, 이를 통해 ‘은/는’의 기본 의미가 ‘대조’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③에서 화제 ‘경찰 대변인’의 뒤에 언급되는 내용을 ‘경찰 대변인’에 관한 정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이는 ‘화제’를 ‘언급 대상’으로 정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음을 말해준다.[21] 나아가 (17가)의 ‘화제에 대한 설명’일 때에만 화제-논평 구조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19)③에서처럼 언급하는 내용의 출처를 표시할 때에도 그러한 구조를 취할 수 있다고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은 문어 자료인 소설의 첫 문단을 옮긴 것이다.

(20) ①진수가 돌아온다. ②진수가 살아서 돌아온다. ③아무개는 전사했다는 통지가 왔고, 아무개 아무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통 소식이 없는데, 우리 진수는 살아서 오늘 돌아오는 것이다. ④생각할수록 어깻바람이 날 일이다. ⑤그래 그런지 몰라도 박만도는 여느 때 같으면 아무래도 한두 군데 앉아 쉬어야 넘어설 수 있는 용머리재를 단숨에 올라채고 말았다. ⑥가슴이 펄럭거리고, 허벅지가 뻐근했다. ⑦그러나 그는 고갯마루에서도 쉴 생각을 하지 않았다. ⑧들 건너 멀리 바라보이는 정거장에서 연기가 물씬물씬 피어오르며 삐익 기적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⑨아들이 타고 내려올 기차는 점심때가 가까워야 도착한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⑩해가 이제 겨우 산등성이 위로

20) 이는 또한 화제 용인가능성 척도가 낮은 화제일수록 명시적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해 준다.

21) 앞에서 ‘화제’를 ‘발화에 의해 언급되는 내용이 그것과 관련된 것임을 제시하는 지시자’로 정의한 것은 이를 고려한 것이다.

> 한 뼘가량 떠올랐으니, 오정이 되려면 아직 차례 멀었다. ⑪그러나 그는 공연히 마음이 바빴다. ⑫까짓것, 잠시 앉아 쉬면 뭐할끼고. (하근찬, [수난이대] 시작 부분)

①, ②는 사건 제시문으로, 화제가 없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진수'가 누구인지 독자가 모름에도 불구하고, 고유명사로 제시한 것은 소설의 문체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①~④는, 현재 시제로 표현되어 있으며, '우리'가 출현한 것으로 볼 때, 뒤에 나오는 '박만도'의 생각을 따옴표 없이 드러낸 것으로,[22] 수사법적 효과를 의도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③의 '아무개'는 불특정 대상으로 화제 용인가능성의 척도상 낮은 지시체이나 ③과 같은 대조적 상황에서는 화제로 제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④의 생략된 주어는 '진수가 살아서 돌아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직전 문맥에서 활성화된 화제이기 때문에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의 이해는 앞을 참조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생략은 ④를 앞부분에 연결시킨다. 생략은 담화를 응집성(coherence)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게 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Johnstone 2008: 118-119).[23]

⑤의 '박만도는'도 소설의 문체적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독자는 '박만도'가 누구인지 아직 모르나 고유명사로 표현되었으며, 화제로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⑥의 화제는 '박만도'일 것이나 직전 문장에서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22) 그러나 ①~④가 직접화법인 것은 아니다. ③의 '우리 진수는 살아서 오늘 돌아오는 것이다'와 같은 표현은 구어적이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⑫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박만도'는 경상도 방언을 사용하는 화자이다.

23) 담화의 응집성에 관련되는 이러한 장치들에 관해서는 Halliday & Hasan (1976) 참조. Brown & Yule(1983: 25, 67)에서는 대명사와 명사구가 연결되는 것은 대명사가 그 명사구를 가리키기(refers back) 때문이 아니라 텍스트가 응집성을 가진다고 독자가 가정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⑦의 ‘그’는 앞에 언급된 ‘박만도’를 가리키는데 ⑥에서와 달리 생략되지 않았다. ⑦에 언급된 내용은 ⑥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 기대에서 벗어난 내용임이 주목되는데, 화제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이 생략되지 않은 것은 여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⑦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위치에서 화제가 생략되어도 해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⑦에서처럼 일반적 기대에서 벗어난 내용일 때 화제가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⑧의 화제는 ‘그가 쉴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으나, ④에서와 마찬가지로 활성화된 화제이기 때문에 생략된 것이다. ⑨의 ‘아들이 타고 내려올 기차’는 이전 문맥에 언급된 ‘진수, 정거장, 기적소리’ 등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추론적으로 접근가능한 지시체이다. ⑪의 ‘그는’도, ⑦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략되어도 해석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나 생략되지 않았는데, 이 역시 다음에 언급되는 내용이 ⑩에 제시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 기대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앞의 ⑦에서처럼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음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⑫는 ①~④와 유사하게 따옴표 없이 ‘박만도’의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까짓것’과 같은 구어적 표현과 ‘뭐할끼고’와 같은 방언을 사용한 점에서 다른 문장들과 구별된다.

(20)에 외현적으로 제시된 화제 중 ⑤, ⑦, ⑪의 경우는 ‘대조’의 의미로 해석되지 않으며, ③, ⑨의 경우만 ‘대조’의 의미로 해석된다. 문어 자료의 경우 ‘대조’의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 ‘은/는’의 사례가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 (20)에서 알 수 있는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건 보고/제시문은 화제를 갖지 않으며, 화제-논평 구조에서도 화제가 앞의 문장에서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 즉 활성화된 상태인 경우에는 생략될 수 있다. 그러나 활성화된 화제라 하더라도 뒤에 언

급되는 바가 일반적 기대에서 벗어난 내용인 경우에는 외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화제로 제시되는 대상은 일반적으로 화제 용인가능성 척도상 상위에 위치하는 지시체이며, 확인가능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생략되거나 축소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소설과 같은 담화에서는 수사적 효과를 위해 독자가 모르는 지시체를 화제로 내세우기도 한다.

3.2.2. 구어 자료의 분석

다음은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 1회분(MBC, 2011.2.12 방영)에서 발췌한 것이다.

(21) N01: 어! 편집자님!
K02: 어! 권재은씨!
강남까지 뭔 행차야?
N03: 인터뷰요.
K04: 어디랑?
N05: 대한일보 문화부 기자라던데. 큰일났어요! 엄청 늦었는데. 핸드폰 두구 오는 바람에 연락두 못했거든요! 화 무지하게 났을텐데.
K06: 에이그, 일찍 좀 나오지! 대한일보 문화부 기자면 사이코패스에 초꼴통이라구 소문난 앤데!
S07: (사이코패스? 초꼴통? 애?)
N08: 사이코패스요? 사람 죽여요 그 기자?
K09: 칼루 말구 펜으루. 여럿 보냈을걸! 조심해! 그 사이코한테 물리면 클나!
S10: 대한일보 송승준입니다.
사이코패스에 꼴통은 맞는데, 보다시피 애는 아닙니다.
K11: 그, 그럼… 그,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
S12: 절벽공사 해 줄 의사는 지금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다는 말이죠!

(21)은 K가 S와 얘기를 나누다가 자리를 떠나면서 N을 마주친 장면이다. K02의 질문은 ‘상대방이 이곳에 온 것’에 대해 무슨 일이냐고 묻는 것이며, N03은 ‘자기가 이곳에 온 것’에 대해 인터뷰 때문이라고 답한 것이다. N05의 첫 발화의 화제는 ‘자신을 인터뷰할 사람’일 것이나 생략되었으며, 세 번째와 네 번째 발화의 화제는 화자 자신, 다섯 번째 발화의 화제는 다시 ‘자신을 인터뷰할 사람’일 것이나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K02~N05의 문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대화의 경우 화제가 문어 담화에서보다 더 자주 생략된다는 것이다. 특히 앞에 언급된 바가 없는 화제도 소통에 장애가 되지 않는 한 생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가능한 것은 화자와 청자가 대화 상황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24]

N05의 마지막 발화 중 ‘화’의 뒤에 생략된 조사는 ‘가’라고 할 수 있다. ‘화’에 대한 설명이라기 보다는 자신이 추측한 바를 사건 보고문처럼 제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N08의 ‘그 기자’에도 조사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 역시 ‘가’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기자’를 화제로 하여 어떤 정보를 구하는 질문이라기 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25]

---

24) 이를 고려하면 대면 대화에서 화제의 생략이 좀더 빈번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0)④에서의 화제의 생략은 ④를 앞 부분에 연결하여 해석하도록 하나, K02에서와 같은 생략은 발화를 텍스트 외적 요소인 대화 상황에 연결시키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텍스트의 응집성을 높이는 수준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K02의 생략된 화제를 청자로 볼 수도 있으나, 이 때에도 동일한 해석이 가능하다). 영어에서도 직접적인 주변 상황에 관한 대화에서는 응시함으로써 지시체 제시를 대신할 수 있다(Brown and Yule 1983: 17). 예: (비를 바라보며) frightful isn’t it.

25) 질문의 경우에도 1) 화제에 대한 정보 요구, 2) 확인 요청, 3) 점검 및 명료화 요구 등으로 화용적 기능을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대체로 (17)에 대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Schiffrin(1994: 165-176)에서는 정보

N05, N08의 발화와 달리 앞에서 살펴본 (11)의 경우에는 '가'를 생략하기 어려운데, 이는 (11)의 대답이 확인문으로서 논항 초점 유형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26] 즉, (11)의 대답에서는 '철수가'가 질문에 대해 확인해 주는 핵심 내용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가'가 잘 생략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11)에서 '특별히 지정'하여 말한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철수가'가 초점 논항인데 기인한다고 하겠다.

K09의 밑줄 친 부분에는 활성화된 화제 '그 기자'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이 위치에 주어가 나타난다면 '그 기자는'보다 '그 기자가'(혹은 '가'를 생략한 '그 기자')가 더 자연스러운데, K09의 발화가 '그 기자'에 관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화제를 외현적으로 드러내어 '그 기자는'으로 제시할 때 자연스러움의 정도가 낮아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K09의 발화가 '그 기자'를 화제로 제시하고 그에 대해 설명한 것이라면 직전 발화에서 이미 활성화된 지시체이므로 화제를 생략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만일 '그 기자가'로 나타난다면 이는 관련되는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의 생각이 맞다는 뜻을 전달하는 표현, 즉 사건 제시문으로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다.

S10은 S가 K에게 말한 내용으로, '사이코패스에 꼴통은'과 '애는'을 각각 화제로 제시한 것이다. 이들 화제는 대조적 상황에 쓰인 것으로 생략될 수 없다. K11은 K가 S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었음을 깨달으면서 발화한 표현으로 독백에 가까운데, 스스로 '이 상황'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 것이므로 '이 상황'을 화제로 볼 수 있다. 여기의 '이 상황'은 앞에서 언급된 상황이 아니며,

---

요구, 정보 점검, 명료화 요구 등으로 나눈 바 있다.

26) 문장 형태를 취하지 않고 '철수.'라고만 답하는 경우는 '가'가 나오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는 서술어를 동반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직시어에 의해 지시되고 있으므로 텍스트 외적으로 '접근가능한 지시체'라고 할 수 있다. S12의 화제 '절벽공사 해 줄 의사는'은 K의 이전 발화에 언급된 바 있는 지시체이다. K11의 '이 상황은'은 '대조'의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데, 이는 '대조'의 의미가 문맥에 기인함을 보여 준다.

다음은 박성현(2008: 310-311)에서 뽑은 것으로 S, T, J, G 네 사람 간의 대화이다(일부 대화는 줄이고 제시함).

(22) S01: 몇 시부터 하는데 스터디를
… (중략) …
T04: 두시
J05: 응 그래?
S06: U 오빠두 하는 거야?
T07: U 오빠는 요새 안돼요. 팔월달엔 안 되구 곧 [( )
J08: [[애기 낳았나 안 낳았나 애기 낳는다 그랬는데
T09: 예 쌍둥이라서 문제가 있다구
S10: 쌍둥이야 애가?
J11: 쌍둥인 거 확실하대 병원에서 [그랬대
S12: [[야아 좋겠네
G13: 좋지
J14: 근데 아들인지 딸인지는 [모른대 만약에 야아 사내아이만 셋이믄 우글우글 우그르 와아
… (중략) …
J20: 차라리 딸이었음 [좋겠대
T21: [[둘 다 아들인 집 보는데 와아 대단하드만 그냥
J22: 정말 힘들어 =
T23: =코피 나 그냥 막 정말 애가 코피 나
J24: 막대기가 완전히
T25: 그 다음에 ( ) 아들 둘 키우는 집은 대단한 아줌마들이

야 (그래요)
J26: 그깐 거기는 [대부분 아들 엄마들은 막 이래
S27: [[아유 쌍둥이야 어떡하냐

T04는 S01에 대한 대답으로 '스터디'가 화제일 것이나 활성화된 화제이므로 생략된 것이다. T07에서 화제인 'U 오빠'는 S06에 이미 제시되었으나 생략되지 않았는데, 이는 대조적인 상황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T07에서 두 번째 발화의 화제인 '8월달엔'은 앞에서 언급된 바 없으나, 텍스트외적 세계에 기인하는 접근가능한 지시체이다.

J08에서 '선배의 출산'에 관한 내용으로 대화의 화제가[27] 전환된다. T09는 '출산'에 관한 소문을 긍정하면서, '쌍둥이임'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으므로, 사건 제시문의 성격을 지니며, '가'가 쓰인 것은 여기에 기인한다. S10은 들은 바에 대한 점검(checking)을 요청하는 질문으로, 특정 화제에 대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화제가 없는 구조를 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J11의 경우 '쌍둥인 거'를 화제로 볼 수 있으므로, '쌍둥이인 거'의 뒤에 '는'이 생략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처럼 '는'의 생략이 가능한 것은 직전 발화에 언급되어서 활성화 정도가 높기 때문이라 하겠다(각주 17 참조). 그렇다면, 화제가 직전 발화에 언급된, 활성화된 지시체임에도 불구하고, 생략되지 않은 것은 무엇때문일까?[28] 이는 J11의 말차례가 이전 발화자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J 스스로 나서서 취한 말차례인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애가 쌍둥이인 것'은 T09에서 언급되었으며, 따라서

27) 박성현(2008: 147-148)에서는 '말차례들이 이어지면서 내부적으로 결속된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것'을 '대화장'이라고 하고, '대화장 내의 말차례들이 결속할 수 있는 중심이 되는 것, 말하자면 각 말차례들이 그것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는 것'을 '대화 화제'라고 불렀다.

28) 생략되어도 소통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점검을 요청하는 S10의 질문은 T를 향한 것일 가능성이 높으나, J가 답변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처럼 스스로 취한 말차례인 경우 자신의 발화가 대화의 화제와 연관된 것임을 좀더 분명히 드러낼 필요가 있으며,[29] J11의 화제가 충분히 활성화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생략되지 않은 것은 여기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J14의 화제 '아들인지 딸인지'는 앞의 대화에서 언급된 '쌍둥이'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추론적으로 접근가능한 지시체라고 할 수 있으며, 문맥상 대조의 의미를 지닌다. T23, J24는 모두 사건 제시문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이/가'를 사용하여 표현한 것이다. T25의 '아들 둘 키우는 집'은 T가 자신의 이전 발화인 T21에서 '둘 다 아들인 집'을 언급한 바 있으므로 텍스트 내적으로 접근가능한 화제라고 할 수 있다. T25의 화제도 '대조'의 의미로 해석된다.

J26은 '그깐'(←그니깐)이 있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T25의 발화를 보충하는 발화이다. 직전 발화인 T25와 화제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화제가 생략되지 않고 '거기는'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J11에서와 마찬가지로 J26의 말차례가 이전 발화자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J 스스로 나서서 취한 말차례이기 때문이라 하겠다. J26에서 J11과 달리 '는'이 생략되지 않은 것은 '대조'의 의미가 분명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30]

---

29) 만일 이 위치에서 T가 대답했다면 '쌍둥이인 거'가 생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뒤에서 살펴볼 J26에서도 유사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여러 명의 참여자가 있는 대화에서는 화제의 외현적 출현 빈도가 좀더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현(2008: 125)에서도 대화를 지배하는 원리와 그 원리의 적용을 조절하는 제약으로 다음을 제시하고, 모든 참여자가 말차례를 가질 권리를 갖되, 화제에 '적정한'(relevant) 발화를 해야 한다는 '의무'도 지닌다고 보았다.
- 말차례가지기 원리: 대화의 모든 참여자는 말차례를 가질 수 있다.
- 말차례가지기 제약: 말차례의 내용이 대화의 화제에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

30) J14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J11에도 '대조'의 의미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21), (22)를 통해 알 수 있는 바를 정리해 보자. 첫째, 활성화된 화제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생략되며, 대화의 경우, 앞에 언급된 바가 없는 화제도 맥락에서 확인가능할 때 생략가능하다. 둘째, 주어가 초점부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초점 논항이 아닌 경우에는 '이/가'를 생략할 수 있다. 셋째, 대조적 상황의 화제는 생략될 수 없다. 넷째, 스스로 취한 말차례에서는 자신의 발화가 대화의 화제와 연관된 것임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활성화된 화제임에도 불구하고 외현적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21), (22)에 보이는 '은/는'이 결합한 표현들은 대부분 '대조'의 의미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화 자료인 경우, 문어 자료에서와는 달리(앞의 (6), (19), (20) 참조), '대조'의 의미를 갖지 않는 '은/는'의 용례가 현저히 적은 것이다(박성현 2008: 177). 이러한 현상은 일차적으로 국어에서 주어가 생략될 수 있는 데 기인하는 현상이며, 대화 현장이 공유되어 있고, 화제가 이어지면서 전개되는 대화의 특성상, 대화에서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영어 대화 자료를 번역하여 대비한 것으로 이러한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23) 영어 대화(Schiffrin 1994: 204)와 그 번역

IVer: Have *you* ever been robbed?	강도 당해 본 적 있으세요?
Gary: *I* was robbed. At night.	당해 봤어요. 밤에.
IVer: When was *this*?	언제였는데요?
Gary: *I* guess about six or eight weeks ago.	6~8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IVer: How'd *it* happen?	어떻게 일어났는데요?
…… (이하 줄임) ……	

수 없으나, S10과 구성하는 인접쌍의 두 번째 부분이라는 점에서 J11을 발화할 시점에서는 반드시 '대조'로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3)은 영어 표현의 주어가 확인가능한 화제이고 '대조'의 뜻이 아닐 때 한국어 번역에서 대부분 생략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대화 자료에서 '은/는'이 결합한 표현들이 '대조'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현저히 많은 것은, 첫째, 국어에서 확인가능한 화제이면서 '대조'의 뜻이 아닌 주어가 생략될 수 있고,[31] 둘째, 대화 현장이 공유되어 있고, 화제가 이어지면서 전개되는 대화의 특성상, 이러한 현상이 대화에서 더욱 두드러지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대화의 언어와 글에 쓰이는 언어가 원리적으로 다른 언어라고 하기 어렵다. 문어이든 구어이든 사건 제시문은 화제를 갖지 않으며, 활성화된 화제는 생략될 수 있고, 활성화된 화제라 하더라도 대조적 상황인 경우 등에는 외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9), (20)에서와 같은 수사법상의 문체적 특성이나 화제의 생략 빈도 등에 있어서 문어와 구어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발화의 화용적 기능에 따른 '은/는', '이/가'의 선택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겠다.

4. 결론

본 연구에서 검토한 바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은/는'은 화제 표지이며, '대조'는 가능한 화제의 영역 중 일부만을 화제로 삼을 때 생겨나는 문맥적 의미이다.
2. 청자가 알 수 있는 대상을 화제로 제시할 때 가장 자연스러운 발화가 되며, 확인가능성 정도가 높을수록 생략되거나 축소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화제가 청자가 모를 가

31) 영어에서도 이러한 생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특히 구어에서는 주어를 포함한 지시체가 생략되는 일이 흔히 있다(Stubbs 1983: 35).

능성이 높은 지시체일수록 부자연스러운 발화가 되나, 수사적 필요에 의해 청자가 모르는 지시체를 화제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3. ‘이/가’는 주격 조사이며, 화제에 결합하지 않는다. 때로 ‘이/가’가 출현한 표현에서 ‘특별히 지정하여 말함’의 의미가 느껴지는 것은 ‘이/가’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며, 논항 초점 구조인 경우 조사를 생략하지 않는 데서 비롯한 결과이다. 주어가 초점 논항이 아닌 경우에는 ‘이/가’를 생략할 수 있다.
4. 문장의 화용적 기능을 ‘화제에 대한 설명’, ‘확인’, ‘사건 보고(또는 제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화제에 대한 설명인 경우 ‘화제-논평’의 구조를 가지며, 확인문과 사건 보고문은 어떤 대상에 대해 설명하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화제를 갖지 않는다. 화제에 대한 설명인 경우에도 이전 발화에서 이미 화제가 제시되어 유지되는 경우에는 생략될 수 있다.
5. 화제가 충분히 활성화된 상태일 때에도 대조적 상황인 경우나, 언급하고자 하는 바가 일반적 기대에서 벗어난 내용인 경우 등에는 외현적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6. 대화의 경우에는 앞에 언급된 바가 없는 화제도 맥락에서 확인가능할 때 생략가능하며, 이는 화자와 청자가 대화 상황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스스로 취한 말차례에서는 자신의 발화가 대화의 화제와 연관된 것임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활성화된 화제임에도 불구하고 외현적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7. 대화 자료에서 ‘은/는’이 결합한 표현들이 대부분 ‘대조’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은, 국어에서 확인가능한 화제이면서 ‘대조’의 뜻이 아닌 주어가 생략될 수 있으며, 대화의 특성상 이러한 현상이 대화에서 더욱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8. 수사법상의 문체적 특성이나 화제의 생략 빈도 등에 있어서

문어와 구어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발화의 화용적 기능에 따른 ‘은/는’, ‘이/가’의 선택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량의 자료를 검토하여 도출한 결과가 아니라는 점과 주로 주어 위치에 나타나는 ‘은/는’, ‘이/가’의 출현 양상을 고찰하여 얻은 결과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좀더 큰 규모의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화제 용인가능성 척도와 관련한 화제의 실현 양상, 대화와 문어 텍스트의 담화적 양식의 특성에 따른 차이 등 좀더 구체적인 모습도 후속 연구를 통해서 세밀하게 규명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남기심 · 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제3판』, 탑출판사, 2011.
목정수, 『한국어문법론』, 월인, 2003.
박성현, 『한국어 대화 화제와 말차례 체계, 집문당, 2008.
박승윤, 「담화의 기능상으로 본 국어의 주제」, 『언어』 11-1, 한국언어학회, 1986, pp. 1-15.
박철우, 『한국어 정보구조에서의 화제와 초점』, 역락, 2003.
성기철, 「국어의 주제 문제」, 『한글』 188, 한글학회, 1985, pp. 1-25.
유현경 · 양수향 · 안예리, 「영어권 중 · 고급 학습자를 위한 조사 ‘가’와 ‘는’의 교수 방안 연구 - 한영 병렬 말뭉치를 이용하여」, 『이중언어학』 34, 이중언어학회, 2007, pp. 272-298.
이정민, 「(비)한정성/(불)특정성 대 화제(Topic)/초점 - 개체 층위/단계 층위 술어와도 관련하여 -」, 『국어학』 22, 국어학회, 1992, pp. 397-424.
이필영, 「조사 ‘가/이’의 의미 분석」, 『관악어문연구』 7, 1982.

임홍빈, 「국어의 주제화 연구」, 『국어연구』 28, 1972.
임홍빈, 『한국어의 주제와 통사분석 - 주제 개념의 새로운 전개,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9.
전영철, 「한국어의 대조초점」, 『언어학』 제43호, 2005, pp. 215-237.
정희원, 「한국어 대조화제와 화제, 초점: 정보 구조적 관점에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채완, 「화제의 의미」, 『관악어문연구』 4, 1979, pp. 205-227.
채완, 「조사 '는'의 의미」, 『국어학』 4, 국어학회, 1976, pp. 93-111.
채완, 「화제와 총칭성, 특정성, 한정성」, 『목천유창균박사 환갑기념 논문집』, 1984, pp. 743-755.
한정한, 「내포문에서의 화제화 제약과 정보구조」, 『언어』 27-3, 한국언어학회, 2002, pp. 535-556.
Brown, G. and G. Yule, *Discourse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Chafe, W., *Discourse, consciousness, and tim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Cole, P. ed., *Radical Pragmatics*, Academic Press, 1981.
Halliday, M.A.K. and R. Hasan, *Cohesion in English*, Longman, 1976.
Lambrecht, K., *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 - topic, focus, and the mental representations of discourse referen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Levinson, S., *Pragma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Prince, E. F., "Toward a Taxonomy of Given-New Information", in P. Cole ed.(1981) *Radical Pragmatics*, 1981, pp. 223-255.
Reinhart, T., "Pragmatics and linguistics: An analysis of sentence topics", *Philosophica* 27, 1981, pp. 53-94.
Schiffrin, D., *Approaches to Discourse*, Blackwell Publishers, 1994.
Stubbs, M., *Discourse Analysis - The Sociolinguistic Analysis of Natural Language*, Basil Blackwell, 1983.
Vallduví, "The Informational component",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0.

On the Usage of Korean Particle 'ɨn/nɨn' and 'i/ga' in Discourse

Choi, Dong-Ju

This paper aims to explain when Korean particle '은/는(ɨn/nɨn)' and '이/가(i/ga)' are attached to the subject of a sentence in discourse respectively. For this purpose this paper analyses written and spoken data.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If the subject of a sentence is topic, '은/는(ɨn/nɨn)' is attached to it. However, in the sentences of identification or event-reporting, '이/가(i/ga)' is attached to the subject, as there is no topic. 2) In Korean, topic can be omitted, if it is identifiable from the context, but should appear when used in contrastive situation. 3) In conversation, the reason why most of the subjects with '은/는(ɨn/nɨn)' have contrastive meaning is because identifiable topics which don't have contrastive meaning usually get omitted in Korean. 4) Thus, we can say the rules of choosing '은/는(ɨn/nɨn)' and '이/가(i/ga)' in written and spoken discourse are basically the same, which depend on the pragmatic function of utterances.

Key words : topic marker, subject marker, topic-comment structure, identification sentence, event-reporting sentence

최동주
소속: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주소: 경북 경산시 대동 214-1 영남대학교
전화번호: 010-9812-2125
전자우편: djchoi@ynu.ac.kr

이 논문은 2012년 7월 10일 투고하여
2012년 8월 1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2년 8월 23일 게재 확정함.